

“5만원 먼저” 노쇼 사기 이어 ‘예약금 먹튀’도 기승

당근에 임시알바·무료 나눔 등 게시
‘보증금’ 성격 입금하면 연락 두절
광주 지역 피해 사례 잇따라 ‘주의’
경찰 “계좌 이력 확인 등 지켜야”

최근 당근(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A씨는 ‘강아지 돌봄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해당 글 게시자가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며 ‘노쇼 방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요구해 이를 보냈는데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이따 연락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수

사의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근 이용자 B씨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당했다. ‘반려견 미용 및 목욕 무료’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씨는 상대가 제시한 애견 미용숍 명함을 찢어같이 믿어 ‘노쇼 방지금’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 후 그의 계정이 탈퇴 상태로 바뀌면서 B씨는 사기 당했음을 깨달았다.

광주 지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이용자들이 노쇼 방지 명목의 예약금만 입금하고 정작 서비스 등은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당근의 동네생활에는 ‘조심하세요’, ‘강아지 임보(임시보호) 알바 사기치신분’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이는 또 다른 게시글 ‘강아지 5일 정도만 돌봐주실분’을 가리키며 ‘보이스피싱’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 한 누리꾼은 “나도 사기를 당할 뻔했다”며 “노쇼 방지 차원으로 5만원을 입금 하라는데, 수상해서 검색해 보니 이 글이 첫 번째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북구 용봉동 인증을 받은 한 누리꾼은 “5만원 예약금이라고 해서 사기를 치는 게 진짜 어이가 없다. 연락이 없을 시 신고할 것”이라며 분개해 했다.

피해 누리꾼들의 공통점은 ‘노쇼 방지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후 상대와 연락이 끊겼다는 점이다.

노쇼 방지금은 거래 예약 후 일방적인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미리 받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올해 들어 광주는 물론이고 전국에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이들이 물품 또는 먹거리를 주문한 후 다른 업체의 상품을 대리 구매 해주면 한꺼번에 비용을 결제하겠다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게 ‘노쇼 방지금’인데, 피해 예방책마저 사기꾼들의 신종 사기 수법으로 둔갑한 셈이다. 특히 노쇼 방지금의 경우 피해액이 5만원 안팎이라는 점과 일자리, 무료 이벤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이 먼저 연락을 취하게 하는 수법이 특징이다.

또 ‘이웃끼리 거래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 악용되고 있어 일부 이용자들이 예견선 “물품 구매마저 꺼려진다”는 등의 우려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당근 관계자는 “당근알바에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노쇼 방지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게시글을 목격할 시 앱 내 기능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쇼 방지금을 선입금으로 요구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좌번호를 안내할 시 먼저 사기 이력 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고하고 앱 내 신고만으로 금전 등 피해 구제가 어려우니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거래라도 계좌 이력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신고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에 공유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창용 기자



‘감탄히어로(路) 아동친화 거리축제’ 참가 좋은 소통데마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감탄히어로(路) 아동친화 거리축제’가 지난 15일 오후 광주 서구 윤천어린이공원에서 열려 아이들이 전시를 보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유가족 현장 촬영 안돼” 제주항공 참사 재조사 파행

항철위 “조사에 영향” 제지에 마찰
“근접 外 허가”…“일관성 없다” 반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조사 가 촬영 금지 조치를 두고 반발한 유가족의 항의에 무산됐다.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

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잔해와 유류품 등을 재조사하려 했다.

재조사는 참사 이후 11개월 동안 방수포로 덮여 있는 잔해물에 유류품과 시신편이 있을 수 있다는 요청 등에 계획됐다.

요청에 이어 유가족들은 직접 참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촬영을 진행했으나, 항철위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끝에 이날 재조사

는 결국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그러다 항철위 측이 유가족들에게 다시 “근접이 아닌 촬영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잔해물을 11개월간 방치해 놓다가 조사를 위해 유가족의 촬영을 제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재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북구청장 백댄서’…행안부 “경위서 제출”

구의회도 입장문…“깊은 유감”

북구, 오늘부터 자체 감사 착수

광주 북구청 소속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공무출장을 내고 구청장의 노래 무대에 백댄서로 참여한 것을 두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성 공무원 8명이 백댄서로 서게 된 경위와 출장 승인 과정 등이 담긴 경위서 제출을 최근 유선상으로 요청받았다.

이에 북구는 관련 설명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북구도 17일부터 당사자들을 불러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자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가 진행됐다.

이날 문인 북구청장은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는데, 이때 북구청 소속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8명이 무대에 올라 응원 도구를 흔들며 ‘백

댄서’ 역할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 공무 출장을 내고 참여했다는 대목에서 처리 자체가 적법한 것이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공무원들을 들러리로 세워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자발적 참여라 해도 이를 용인한 구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출장은 직원 개별 판단으로 이뤄졌고, 사전 연습이나 출장비 지급은 없었”고 밝혔다.

그러나 문 청장의 입장 표명 후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날 의원 2명 일동으로 내 입장문을 통해 “‘KBS 전국노래자랑’ 북구편 무대에서 발생한 북구청장의 부적절한 공무원 참여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무 수행의 적정성, 공직자의 품위, 성인지 감수성, 조직 문화의 건강성 등 공직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창용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 대표-양재혁 유족회장 면담
오월단체 등 반발…양 회장 “단순 문병”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지역민의 거센 반대에 ‘5초 약식 참배’ 후 발길을 돌린 날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오월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양 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광주 서구 한 병원에서 장 대표를 만났다.

장 대표의 광주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고 오월 단체 내부에서도 그와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양 회장이 장 대표를 만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병실에 누워있던 중 지나가는 길에 비공개로 방문하겠다고 해 짧은 대화를 나눴다”며 “단순 문병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